



07

사립 초·중·고가 ExitWise를 써야 하는 이유

학생은 주는데,
교사와 부지는 **그대로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재정 문제입니다. 유휴 자산 처분은 이사회와 관할청을 함께 설득해야 합니다.

ACT 01	ACT 02	ACT 03	ACT 04
현실 THE REALITY	위기 THE RISK	전환 THE SHIFT	결과 THE RESULT
학급 수는 줄었는데 교사·운동장·기숙사는 그대로 유지비를 먹습니다.	처분을 검토해도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이사회 합의와 관할청 보고 문턱에서 번번이 멈춥니다.	ExitWise로 유휴 자산의 시세·활용 대안·매각 시나리오를 문서화합니다. 감정에 기대지 않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사회는 숫자로 판단하고, 관할청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자료가 제출됩니다.

사립학교 법인을 위한 4가지 CORE CAPABILITIES

 01 유휴 자산 진단 쓰지 않는 시설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02 처분 절차 근거 왜 지금 처분해야 하는지를 문서로 설명합니다.	 03 이사회 보고자료 이해관계가 갈리는 자리에서 공통의 숫자를 제시합니다.	 04 활용 대안 비교 매각·임대·전환을 나란히 놓고 손익을 따집니다.
---	---	---	--

의사결정

감정 → 근거

합의를 앞당기는 자료

보고 자료

부재 → 완비

관할청 제출까지 대응

재정 압박

방치 → 개선

교육에 쓸 자원 확보

“학교의 자산은 결국 교육을 위해 존재합니다.

ExitWise는 처분의 정당성을 문서로 남깁니다.

—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면,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한다